



대보건설 주식회사

경기 안산

“언어 장벽을 넘은 따뜻한 동행”

현장에 무려 50여 명의 외국인근로자가 함께 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 통역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수시로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업무 외에도 외국인근로자가 한국 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다.



근로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 전파 및
정기 안전교육을 통해 4년째 사고 한 건 없이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보건설 주식회사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제1-1공구 현장은 2020년에 착공해서 3.292km 터널 굴착을 완료하고, 현재 지하철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보건설은 그 무렵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건설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건설 현장의 고령화 문제는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현장에서 근무하고 나서야 몸으로 체감했습니다.

현장의 근로자들 중 50-60대 이상의 근로자분들이 6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20~30대 근로자분들은 20%도 안 되는 비율입니다.

우리 회사는 고령화에 따른 숙련공들의 부족은 안전사고의 취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젊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더 젊어진 현장으로 개선하고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를 통해 제가입사하고 4년째 중대재해사고 한 건도 없이 현장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16명, 2022년에는 20명, 2023년에는 34명, 2024년에는 약 56명의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여 같이 현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많아진 만큼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에 관한 위험성 평가 전파 및 정기 안전교육에 힘을 더 실기로 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인천지사)로부터 통역서비스를 지원받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근로자들에게 교육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또한 팀별로 외국인근로자들 숙소에 방문하여 각국 대표 음식을 먹고 서로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맞춰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미얀마 출신 근로자 에이민 씨가 계시는데,
2022년 6월에 입사하여 2023년 6월에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고 재입국 특례 제도를 통해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여 지금 10개월째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에이민 씨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많고 처음 한국에서 일하는 미얀마 근로자들도
잘 챙겨줍니다. 한국말이 서툰 주변 동료들을 위해서 통역은 물론, 작업에 대한 설명이나
안전 사항 전파 등 우리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근로자들과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적이나 언어가 달라서 힘들다기보다 그런 장벽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더 큼니다. 건설 현장엔 일한 일자만큼 월급이 책정되다 보니
가정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들은 간혹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도
돈을 벌려고 출근했습니다. 몸이 어떻게 안 좋은지 느낀 대로 표현하기 어려울 테고
그래도 현장에 폐를 안 끼치고 싶다고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소통하고
통역서비스를 활용해서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 같은 경우,
안전 탐장님이 베트남 지역을 좋아하셔서
외국인근로자와 베트남 음식을 해먹으면서
애로사항도 경청하시고
베트남어도 따로 공부하셔서 소통하고 계십니다. ”**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들이 업무 외에도 한국 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선 안전 측면에서는 안산 소방서와 연결해서 연 1회 비상사태 모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원어민 강사가 직접 심폐소생술을 강의해주고
화재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다른 외국인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공유해주고,
문화의 거리 축제나 다문화 축제가 있을 때마다 적극 참여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 있어서는 고용허가제가 확실히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본 내용은 사업장의 수기 사례 및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재가공되었습니다.